

## 옛 선인들의 명승 인식 태도에 관한 연구 -조선시대 관폭도(觀瀑圖)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cenic Site Recognize the attitude of Scholar  
-Focusing on Gwanpokdo(Painting of Viewing Falls) of Joseon Dynasty-

이원호, 안혜인, 김재웅, 김동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Lee, Won-Ho, Ahn, Hye-In, Kim, Jae-Ung,  
Kim, Dong-Hyu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요약

본 연구는 조선시대 관폭도를 중심으로 옛 선인들의 명승 인식 태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폭포 표현은 폭포의 형상이나, 조망하는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관념 산수에서의 폭포가 지니는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 폭포는 이상향과 속세의 경계이면서 동시에 관조의 매개체가 되었고, 단순히 풍경의 의미가 아닌 관조적 대상의 장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컸다.

## I. 서론

옛 선인들이 그린 산수화에는 빼어난 산과 물이 표현되어있다. 명승은 대부분 빼어난 산수를 의미하는데, 산수라는 용어에는 자연현상과 삼라만상을 모두 포함하는 동시에 그 대상을 바라보며 감상하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지향성이 함축되어 있다. 옛 선인들은 명승의 심미형태를 크게 웅장함과 수려함, 기이함과 험준함, 그윽함과 드넓음으로 구분하였는데[1], 폭포는 웅장함과 기이함에 속한다. 이처럼 폭포는 웅장하고 기이한 모습으로 선인들에게 강한 인식을 주었으며 이러한 인식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관폭도이다. 관폭도에서 선인들이 바라보는 폭포는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내면의 세계를 담은 심상의 표현이었으며, 자연의 위대함과 역동성을 담고자 했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명승의 일환으로 조선시대의 회화 중 폭포를 표현한 관폭도를 중심으로 옛 선인들의 명승에 대한 인식태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조선시대 대표적 작품 중 폭포가 표현된 작품 40점을 선정하였다. 먼저 조선시대 산수화에 표현된 물의 의미와 관폭도의 구도와 시점을 파악하였고, 그림에 나타난 인물의 표현과 행태, 경물요소를 분석하여 조선시대 산수화 중 관폭도에 표현된 폭포를 옛 선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표현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조선시대 관폭도의 폭포

#### 1.1 폭포의 구도

화면에 있어서 구도는 화가의 관찰 방법과 인식함에 따라 결정된 것이며, 화가가 스스로 조직하고 배치하여 화가가 인식한 대상에 대한 질서를 부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화면의 구도는 화가가 인식한 대상이나 주체의 내면 세계를 작품에 구현에 낸다는 것을 뜻한다. 조선초기와 중기의 관폭도는 대부분 대각구도로 폭포와 폭포를 관조하는 인물과 대칭으로 표현되어 졌는데, 이러한 구도는 조망점과 조망하는 대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때 화면에서 인물들이 차지하는 면적은 폭포가 차지하는 면적보다 더 비중을 두었는데, 이는 폭포가 그저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자연과 하나된 인물들의 관조 정신을 나타내고자 함이다[3], 조선후기는 진경산수화의 등장으로 실경을 보고 그것을 화면에 옮기는 작업이 주를 이루었는데, 그로 인해 여유를 부리던 여백이 점점 없어졌고, 이 전의 대각구도에서 전면구도가 성행하게 되었다. 인물의 표현보다는 폭포의 표현이 두드러졌으며, 폭포를 편파구도, 중립구도로 배치함으로써 균형감을 주었고 폭포가 주는 의미를 한층 더 고조시키게 되었다.

#### 1.2 인물의 시점

화면에 표현된 인물은 곧 화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그림속의 인물이 바라보는 경물은 화가가 취한 경관임을 의미한다. 관폭도에 나타난 인물과 폭포의 거리를 살펴 보았을 때, 원경에서 폭포를 관조하

는 형태가 다수 나타났다. 조선 초기·중기에서 조선 후기로 가면서 그림 속 인물과 폭포의 거리는 가까워졌는데, 이는 조선 후기 명산 명승과 명소 등 유명한 자연경관을 그린 실경 산수화의 유행으로 실제로 경험한 체험적 그림이 유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림 속 인물의 표현은 이전보다 작아졌고, 화면에 나타나는 경관의 모습을 더욱 웅장하게 표현되었다. 인물과 폭포의 거리가 비교적 멀게 표현된 관폭도는 폭포의 표현 뿐만 아니라 인물의 표현도 크게 나타나는데, 폭포를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을 화면에 표현함으로써 자연과 동일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반면에 인물과 폭포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관폭도는 인물의 표현을 작게 표현함으로써 폭포의 크기와 깊이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폭포는 더 이상 관념속의 이상향이 아닌 실재하는 자연과의 직접적 교감을 통한 미감과 미적관조를 여실히 표현하는 것으로서<sup>4)</sup>, 이러한 과장된 표현은 작품속의 인물이 마치 내가 된 것처럼 착각하게 하며, 폭포의 절경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 1.3 인물의 행위

화면 속에 표현된 인물의 행위는 작가 자신의 감정의 표출이며 정신의 기탁으로 자연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는 것이다. 관폭도에 표현된 인물들은 대부분 폭포를 조망하는 행위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폭포를 바라보는 인물들은 대부분 너럭바위나 산봉우리에서 폭포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앉아서, 서서, 담소를 나누며 바라보는 행위를 하였고, 조선후기 관폭도에서는 직접 폭포를 보기 위해 접근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경관으로 표현하여, 폭포의 경관을 한층 더 극대화 시켰다. 그 외에도 바위 아래에 흐르는 폭포를 바라보는 그림과, 나귀를 타고 지나가며 폭포를 언뜻 보고 지나가는 행위가 나타났다.

### 1.4 식생

그림의 구성요소를 파악하는 것은 화가의 작화의도를 파악하는데 용이한데, 특정 소재가 지니는 상징성은 화가가 표현하고자하는 관념의 표현이며, 화면의 주가 되는 대상과 부합되어 그 의미를 강조시킨다. 관폭도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식생은 소나무로 조선시대 회화에서 소나무는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푸르며 고고한 자태로 당대 사대부들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화하는 대상이었다. 관폭도에 표현된 소나무는 대부분 화면에 있어 부수적인 요소가 아닌 전경에 소나무를 크게 배치하고 줄기와 가지를 꺾이게 그림으로써 근경에 인물과 함께 화면의 중심체제로 그려졌다. 이는 동적인 폭포와 정적인 소나무, 그리고 폭포와 소나무의 절개, 자연과 하나 되고자 하는 물아일체의 경지에 도달함을 표현한 것이다. 관폭도에 등장하는 소나무는 자연의 일부로 존재하는 소나무로 단순히 객관적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탈속이라는 상징물이라는 관점에서 그려진 것이다.

### 1.5

폭포는 바위사이를 가로질러 역동적으로 흐르는데, 관폭도에 표현된 바위는 최대한 표현이 생략되거나, 폭포와 바위가 음과 양으로 표현되어 음양 상호보완을 이룸으로써 폭포의 형상을 강조시킨다. 관폭도에서 표현된 바위는 외형의 표현이 아니라 폭포의 힘과, 리듬 그리고 폭포가 주는 외형적인 조형성과 상징성을 부각시켜주는 경물로써 인식할 수 있다.

## IV. 결론

본 연구는 조선시대 관폭도를 대상으로 옛 선인들의 명승 인식 태도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폭포의 구도, 시점, 관폭도에 표현된 인물의 표현, 식생, 바위의 표현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폭포와 인물의 대각구도에서 인물은 폭포를 관조하는 인물의 표현이 두드러지는 반면 조선후기로 가면서 폭포를 편과구도·중립구도로 표현되어져 폭포의 표현에 있어 균형감과 상징성을 고조시켰다.

둘째, 조선후기로 갈수록 폭포와 그림 속 인물은 가까워지면서 폭포는 더 이상 관념속의 이상향이 아닌 실재하는 자연과의 직접적인 교감을 통한 미적대상이 되었다.

셋째, 관폭도에 표현된 인물은 폭포를 조망하는 행위가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너럭바위나 산봉우리에서 폭포를 조망하는 모습이 표현되어졌다. 조선후기 관폭도에서는 직접 폭포를 보기위해 접근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경관으로 표현하여, 폭포 경관을 한층 더 극대화 시켰다.

넷째, 관폭도에 표현된 식생 중 소나무가 표현된 그림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소나무는 폭포의 상징성과 부합되어 폭포의 의미를 한층 더 부각시켰다.

다섯째, 관폭도에 표현된 바위는 폭포에 생동감을 부여해 줄 뿐만 아니라, 음(陰)과 양(陽)으로 표현되어 폭포와 암벽의 대비로 폭포가 쏟아지는 절경을 극대화 시켰다.

관폭도에 나타난 폭포는 폭포의 형상이나 조망하는 대상이 차이가 있지만, 폭포가 지닌 의미는 변하지 않으며, 옛 선인들에게 있어 관조의 매개체로써, 단순히 풍경의 의미가 아닌 장면으로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 ■ 참고 문헌 ■

- [1] 문화재청 “전통명승 동천구곡의 유형과 활성화 방향”, 문화재청, pp19-50, 2008.
- [2] 이성혜 “조선후기 관폭시와 관폭도의 미적 관련 양상”, 동양한문학회, 제19권, pp175-209, 2000.
- [3] 전평국 “산수화의 폭포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4] 이동우 “조선후기 산수화의 구도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